



〈빵과 물고기의 기적〉, 최영심 작

예수님께서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마태 14,18-20)

[제1독서] 이사 55,1-3

[화답송] 시편 145(144),8-9.15-16.17-18

(◎ 16 참조)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2독서] 로마 8,35.37-3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마태 14,13-21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때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¹³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나섰다.
¹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¹⁵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¹⁶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¹⁷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¹⁸ 예수님께서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¹⁹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²⁰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²¹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가량이었다.

그림 묵상

음식이 넉넉한 이유

주님이 주시는 음식이 넉넉한 이유
 사랑이 가득 담긴 음식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넉넉한 이유
 사랑이 가득 담긴 분이시기에...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마태 14,20)

〈임의준 신부 / 가톨릭 신문〉

†복음 묵상

우리 전통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상차림입니다. 밥과 반찬을 주로 하여 격식을 갖추어 내는 상차림은 상을 받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랐습니다. 아랫사람에게는 밥상, 어른에게는 진자상, 임금에게는 수라상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 수에 따라서 혼자 먹는 밥상을 외상 또는 독상, 두 사람이 먹는 밥상은 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외상으로 차려진 반상에는 삼 첩, 오 첩, 칠 첩, 구 첩, 십이 첩이 있는데, 당연히 임금의 수라상에는 십이 첩이 올려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많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자 세상을 구원하실 임금이시니 십이 첩은 기본이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가장 간결한 차림으로 평민이 먹었다는 삼 첩 반상보다 빈약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아낌없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결과와 제자들의 행동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모두를 배불리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풍성히 남았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가량이 먹었고, 남은 것은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가지고 있던 것을 기꺼이 내놓음은 물론 분배자로서도 봉사합니다.

임금의 생일로 십이 첩 수라상에 궁중 연회까지 더해진 헤로데의 잔치에서 세례자 요한이 죽으면서 그의 잘린 목이 쟁반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한 밥상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배고픈 백성을 향한 동정심에서 비롯된 생명이 넘치는 풍성함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빵의 기적은 단순히 식사를 나누는 인간적 체험을 넘어 사랑을 실천하려는 하느님 백성의 희망과 연결됩니다.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박기석 사도 요한 신부)

교황, “바이러스가 아닌 사랑에 감염됩니다”

“우리 삶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뿌리로부터 이 위기 이후 우리를 기다리는 어려운 문제에 대응할 힘이 나옵니다. 그 뿌리에는 가까이 다가감, 사랑, 봉사로 이뤄진 모델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코로나19 대유행의 시대에 관한 묵상은 발터 카스퍼 추기경과 게오르그 아우구스틴 신부가 엮은 신간 『친교와 희망』의 서문에서 잘 드러난다. 신간은 교황청 홍보를 위한 부서가 바티칸 출판사를 통해 출판했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연대”를 불러일으킬 풍부한 신학적 사상을 담은 신간이 출간됐다. 새 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초기 몇 달의 시련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살피면서, 회복의 길을 위한 주님의 현존이 우리와 함께하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증하는 확실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연대”를 강조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러한 염원을 ‘교황청 홍보를 위한 부서’가 바티칸 출판사(LEV)를 통해 펴낸 『친교와 희망』의 서문에 담았다.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전임 의장 발터 카스퍼(Walter Kasper) 추기경과 ‘발터 카스퍼 추기경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독일 출신 게오르그 아우구스틴(George Augustin) 신부가 출간 작업 전반을 담당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련의 시간이자 선택의 시간”

교황은 서문을 통해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폭풍우처럼 - 지난 3월 27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장엄기도 당시 언급된 폭풍우를 연상시킨다 - 모두에게 갑작스레 다가왔다. 교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정의 삶, 일자리, 공공활동을 바꿔놓았다면서, 죽음, 경제적 시련, 성찬례와 성사로부터도 멀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류의 취약성과 대립, 회복의 필요성을 노출시킨 이 극적인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확실한 것들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행복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보물에 대한 본질적 질문들 앞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우리 모두를 지탱하는 깊은 뿌리는 어디서 나오나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수적인가요? 코로나19 대유행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성찰하도록 이끄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 삶을 우리의 버팀목이자 목적지인 하느님께로 쇄신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시련의 시간이자 선택의 시간입니다.”

지구와 가난한 이의 외침에 귀 기울이기

교황은 전 지구적 불공정과 무관심을 거슬러 모두가 연대와 봉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긴급상황은 우리가 얼마나 타자와의 연대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봉사하도록 촉구합니다. 극심한 아픔을 겪는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깨어있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는 전 지구적 불공정을 없애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마비가 아닌 “사랑의 감염”

교황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이 부활시기와 겹쳤음을 상기하면서 “부활의 메시지는 현재와 미래를 밝히고 마비를 피하게 하는, 죽음을 거스른 생명이 승리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 믿음, 용기를 주었고, 연대와 형제애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위험을 통해 우리는 다른 형태의 감염, 곧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사랑의 감염’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자발적 도움을 제공하려는 수많은 의지의 표현과 의료종사자, 의사, 사제들의 개인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에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신앙에서 나오는 강한 힘을 체험했습니다.”

시련을 극복할 강한 힘은 성찬례 안에서

교황은 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을 강조했다. 교황은 공적 전례 거행의 금지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임시방편으로 미디어를 통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성체를 영하지 못해 힘들었던 시기”를 기억하는 한편, 그럼에도 그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 중계된 전례 거행도 성찬례 안에 실재하는 주님의 현존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여기에 일상의 전례 생활 회복의 기쁨이 있음을 설명하며 서문을 마무리했다.

“말씀과 성찬례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은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이후 우리를 기다리는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줍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듯, 프란치스코 교황도 모든 인류에게 미래를 위한 희망의 표징인 예수님 말씀을 반복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음을 이겼다.”

본당 신학생 인사 Greeting of Seminarians

이동한 다니엘
Donghan Lee(Daniel)



안녕하세요 이번에 Mount St. Mary's 신학교에, 알링턴 교구 소속 신학생으로 들어가게 된 이동한 다니엘입니다. 초등학교 때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신부님이 되고 싶었던 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머니와 많은 신자 분들이 기도를 해주신 덕에 드디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갔다고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걸 배워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llo,

I am Donghan Lee, Daniel, who recently accepted by Diocese of Arlington as a seminarian and will be attending Mount St. Mary's Seminary.

I had a dream of becoming a Catholic priest since I was 6th grade. With many ups and downs and prayers from my mother and many parishioners, I finally made it to the seminarian position.

Although I got into the seminary, I will learn with modesty since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my journey toward the priesthood.

Thank you for all people who have prayed for me so far, I will still need more prayers.

이효빈 바오로
Paul Rhee



안녕하세요, 이번에 식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효빈 바오로입니다. 올해 초에 신학교 입학원서를 제출할 즈음에 COVID-19이 시작되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입학 후 학업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백신부님, 강신부님, 방신부님, 저의 부모님, 가족들과 주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이동한 다니엘신학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힘이 되겠습니다.

I am very excited to start this new chapter of life. I am very grateful to my parents, family, priests, SPC, and bishop for helping and praying for me. I was a little scared because COVID-19 happened right when I started applying, but I am very happy that it all worked out. Now I just want to get started and can't wait to go to the seminary. I am excited about people, learning, praying, and just growing closer in my relationship with God. I truly do All the years I will be there are meant to help me become a Saint and hopefully a priest one day. believe God is calling me to become a priest and discern at the seminary. Please pray for Donghan and I because we really do need your prayers.

성당 나눔터 ‘소화기 보호소 (Fire Safety Hut)’ 제작



지난 7월 18일, 본당 홍순철 요한 형제의 아들 브라이언 홍(Bryan Hong) 군과 그가 속해 있는 Boy Scout Troop 893 은 브라이언의 Eagle Scout Project을 위해 성 정바로 성당 나눔터에 ‘소화기 보호소 (Fire Safety Hut)’ 를 제작하고 기부했다. 보이스카웃의 최종 단계인 이글 스카웃(Eagle Scout)의 명예를 획득한 브라이언군을 축하하며, 성당 나눔터의 안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 소화기 보호소를 만드느라 함께 수고한 Boy Scout Troop 893 팀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

On July 18th, Bryan Hong from Boy Scout Troop 893 built and donated a Fire Safety Hut to St. Paul Chung’s picnic area as Bryan's Eagle Scout Project. Bryan earned the Eagle Scout honor which is the final stage of the Boy Scouts.

We congratulate Bryan’s accomplishment and also thank the Troop 893 team members for their effort to build a nice Fire Safety Hut that holds fire extinguishers for the safety of our church’s picnic area.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아래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 가족이나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오거나,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2주 동안)
- ▶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2주 동안)

• 주일 미사를 자제해야 하는 경우

- ▶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등 면역에 취약한 사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톤 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요일과 의무의 날에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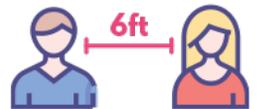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미사 참여자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6FT)**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99.5°F 이상 입장 불가)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 표시된 자리**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해 방역과 환기가 필요합니다.)



• 일반 준수사항

-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6FT), 손 씻기 및 소독의 생활화
- ▶ 성당 건물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합니다.
- ▶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시 즉시 성당에 알려야 합니다.



1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 일시 : 8월 15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 사전에 미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미사는 생중계됩니다.

2 주일 미사 참여 신청에 대하여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미사 참여를 원하고 계시나 현재 미사를 자유로이 재개하기에는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100명 이내로 제한**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사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놓아야 하고,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사전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100명씩 선정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성당 사무실(703-968-30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평일 미사 재개

- 그동안 신자 없이 봉헌하던 **평일 미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 수요일 : 오전 11시
 -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 평일 미사 참여자가 지켜야 할 수칙 또한 주일 미사와 동일합니다.
 - * **마스크 착용** * **거리 두기**
 - * **참여자 명단 작성** * **발열 체크** * **손 소독**
- 보다 안전하게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5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유아세례 안내

-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정된 날에 합동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별적**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합니다.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2021년 본당 달력광고 접수

- 2021년도 본당 달력에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703-968-3010)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 : \$600

성소후원회 공지사항

본당 성소를 위한 미사와 묵주기도 그리고 후원금 모금

- 저희 본당에서도 2020년 가을학기부터 두 명의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가 사제 양성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성소후원회에서는 본당 신학생들과 성소를 위해 교우 여러분들과 **미사 참여 (매달 둘째 주 금요일)**와 **묵주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학생들과 성소를 위한 후원회비와 후원금 모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오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는 성소 후원회비와 후원금에 대해 연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산해 드립니다.)

▶ 온라인 봉헌 : 성당 홈페이지

봉헌하기 > 봉헌종류 - '성소후원' 선택 > Pay Now

▶ 우편 봉헌 : 성당

체크 메모란에 **‘성소후원’** 명기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교황님의 **8월 기도 지향** **삶의 터전인 바다**

**“선원과 어부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바다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2020-21학년도 하상 한국학교
정규학기 등록 안내

1. 입학 대상 (ADMISSION) :

유치부-1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K-12th)

2. 학사 일정 (ACADEMIC SCHEDULE) :

2020년 9월 12일-2021년 5월 22일

매주 토요일 (Every Saturday) 오전 9:30-오후 12:30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반별 수업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COVID-19 상황이 나아지면 대면 수업을 실시합니다.

3. 학비 (TUITION) :

등록비(\$50) 포함된 비용 (등록비는 환불 안됨)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400	\$380	\$360

4. 등록안내 :

학비 또는 등록비 \$50과 함께 아래 방법으로 접수

• <https://forms.gle/Bwnw2L2pv8aG4Rxt5>

• 등록비 보내실 곳:

Hasang Korean School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pay to order: Hasang Korean School)

• 등록마감 : 8월 15일까지

5. 기타 :

• 문의 : 교감 김정선

☎ 571-217-8941

✉ hasangkoreanschoolva@gmail.com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18주 주간: 예레 30-33, 야고 1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7월 26일(연중 제17주일)

주일헌금	\$1,742.00
(프란치스코 재속회 미사 헌금 \$323.00 포함)	
교무금	\$11,075.20
교무금(크레딧카드)	\$2,120.00
감사헌금	\$1,850.00
2차헌금	\$0
합계	\$16,787.2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8월 5일(수) 오전 6:15-6:45 | 8월 8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황창연 신부님의 성서특강 '강은 인류에게 선물' (메소포타미아 문명 1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8월 6일(목) 오후 5:00-6:00

8월 7일(금) 저녁 8:00-9:00

8월 9일(일) 오전 6:00-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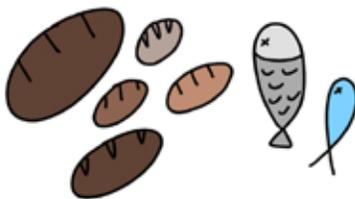


- 특집: 황창연 신부의 행복 특강 - 자신 겨안기 3A
-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 천호성지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고편순(젬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승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례(안나), 이영민 (다윗), 한양수 (스테파노)



사람들은 모두 배부러 먹었다.

마태오복음서 14장 20절

<바오로딸 콘텐츠>